

한국당 보이콧...정기국회 시작부터 '힘로'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 반발...국민의당·정의당 맹비난

김이수 임명동의·법안처리 차질...원내대표 연설 등도 반쪽

자유한국당이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기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정기국회 정국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으로 접어들었다. 특히 한국당은 MBC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보이콧을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급격하게 얼어붙은 정국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3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한국당이 관련 상임위 일정까지 모두 거부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이 한국당의 보이콧 선언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바른정당도 신중한 입장이어서 한국당의 의사일정 거부가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오

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의사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공영방송 사장을 체포하는 작태는 군사 정권에서도 유례없었던 일이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자유민주주의 파괴"라며 "이제는 인내심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는 이례적으로 홍준표 대표까지 참석해 강력한 대어(對黨) 투쟁에 힘을 보탤다. 원내 대표인 홍 대표가 지난 7월 취임 이후 의총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에서의 첫 정기국회에서 '전면 보이콧'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현시점에서 문재인 정부를 제어하지 않으면 향후 국정운영 과정에서 계속해서

클러다닐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할 경우 대국민 여론전에서 밀리고, 결국 지지율 회복도 요원해질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있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부·여당 역시 적폐정산의 기치 하에 '방송 개혁'을 중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당분간 여야는 접점 없는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첫 일정인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은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교섭단체 중심으로 반쪽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또 오는 4일 표결 처리 예정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필두로 각종 법안 처리에는 차질이 예상된다.

우선, 첫 일정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경우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연설에 불참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

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3명만 연설에 나설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추 대표는 민생문제 해결과 협치를 전면에 내세우려 했지만, 이번 보이콧의 여파로 한국당을 겨냥한 공세를 펼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 대표 측 관계자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문제를 비롯, 정기국회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공세는 자제하자는 생각이었다"며 "하지만 한국당이 보이콧을 결정했으니 상황이 급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당 김 원내대표나 바른정당 주 원내대표의 경우 국회 일정은 소화하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낼 것으로 보여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의 여야 간 공방이 거칠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한반도 안보위기의 고조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역할을 놓고 야당의 거센 공격이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주식 의혹' 이유정 결국 사퇴

새 정부 5번째 낙마

코스닥·비상장 주식 투자로 거액의 이익을 거둬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에 휩싸인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차관급 이상 인사 중 안경환(법무부·조대업(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국가안보실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이어 다섯 번째 낙마자다.

이 후보자는 지난 1일 입정문을 통해 "이 시간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주식거래와 관련 제기된

의혹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적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린다"면서 "그러나 그와 같은 설명과는 별도로, 그런 의혹과 논란마저도 공식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저의 문제가 임명권자와 헌법재판소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며, 제가 생각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역할도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저의 사퇴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다양화라는 과제가 중단되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중앙당 후원회 구성 '분주'

실무절차 돌입...선거 앞 최대 100억원 가능

지방선거를 9개월여 앞두고 여야 모두 중앙당 후원회 구성 준비에 나섰다.

지난 6월 정치자금법의 개정으로 중앙당 후원금 제도가 11년 만에 부활하자 각 정당이 후원회 결성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각 정당은 중앙당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연간 100억원까지 자금을 모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 후원회 설립을 위해 사무총장실을 중심으로 실무 절차를 돌입했다.

자유한국당은 아직 중앙당 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지만, 준비작업을 거쳐

조만간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새 지도부를 막 꾸린 상태라 아직 구체적인 후원회 결성 계획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조만간 관련 준비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은 지난 7월19일 원내 정당 중 가장 먼저 중앙당 후원회를 설치해 중앙선관위에 공식 등록했다.

정당당이 가장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 전남 전국위원회에서 중앙정치자금특별위원회 설치 안건을 의결한 정의당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150억원 모금 프로젝트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안철수 "혁신열차 출발...제2 창당 준비위 발족"

국민의당 혁신안 전달식

중앙당 정예화...시·도당 강화

선거제도 개혁 연대 총력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일 당 혁신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제2 창당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김태일 혁신위원장이 정리한 '국민의당 혁신안' 전달식을 열고 "대선평가 보고서, 혁신안 보고서에서 나온 방안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일을 제2 창당 준비위에서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제2 창당 준비위원장은 실질적인 실행을 위한 권한까지 갖고 당 혁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실행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대로 된 제2 창당 수준의 혁신', '본권 정당', '당원 정당', '민생 정당'을 당 혁신의 4가지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혁신 열차가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혁신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당은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다. 실패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 노선에서 부수의 시장실패와 진보의 국가 실패의 '사이'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사회경제모델인 정의로운 시장경제가 필요하다"며 "생활현장 중심의 민생정치도 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일 혁신위원장은 "국민의당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3일 오후 국회에 열린 북핵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정치와 관련해 여러 개의 검증된 것만이 있다"며 "안철수의 '정춘 콘서트', 손학규의 '저녁이 있는 삶', 정동영의 '희망 버스', 천정배의 '민생 포럼'이 그것들"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조직노선 부문에서 '본권형 참여정당'을 강조하면서 "중앙당은 정예화하고, 17개 시도당을 강화하고, 지역위원회는 풀뿌리 기반의 지지자들을 만들어

내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정치노선과 관련해 모든 의제에서 '주도자'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고 분명한 혁신과 정확한 방향, 속도가 필요하다"며 "비례성 강화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연대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악마의 손'이라도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대표에 대한 주문 사항도 있었다. 보고서는 "국민의당의 혁신을 위해서 당 대

표자는 두 가지로 싸워야 한다"며 "하나는 시간과의 싸움, 혁신의 속도와의 싸움인데 지방선거는 어느새 코앞에 성큼 다가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하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된 안 대표 자신과의 싸움"이라며 "당 대표는 자신이 앞장서 '익숙한 것'으로부터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혁신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

"安, 전략·메시지·소통 부족해 패배"

국민의당 대선 평가 보고서

국민의당 대선 평가위원회는 지난 1일 '19대 대통령 선거 평가보고서'를 통해 전략·공약, 홍보·메시지 전략의 부족함이 컸고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대선 평가위는 우선 안 후보가 대통령선거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우지 못했고 각종 정책에 대한 철학을 확고하게 보여주는 것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대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이자 '촛불대선'인데 이에 적합한 전략과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평가위는 또, 안 후보가 대선 정책들에 대한 개념이나 철학적 이해, 가치관의 정립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대선을 치렀던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상황이 선거 막판까지 이어지면서 TV 토론

에서 안 후보의 핵심적 약점으로 부각했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TV 토론을 통해 가치와 내용이 없는 '중도'를 표방함으로써 오히려 'MB 아바타'라는 이미지를 강화했고, 적폐정산에 반대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줬다는 평가다.

여기에 안 대표의 '자강론'이 중도 정책성 및 정책 공약에서도 문제가 적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미래'라는 슬로건을 선점했지만, 당과 후보의 이념적 및 정책적 스탠스(입장)를 모호하게 하면서 호남과 영남, 보수와 진보 모두로부터 어떤 받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선 때부터 중요한 전략 결정과 홍보 분야를 외부 인사나 컨설팅업체에 의존했다는 것도 패배의 주요인으로 꼽혔다. 이에 안철수 대표는 "보고서에 나온 내용, 저와 당이 고칠 점들은 겸허하게 수용해서 우리 당을 제대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담양군 고서면 고읍리 현성업종
조청가



토지 1497평
건물 180평
야외결혼식 매매가 16억

동구 금남로2가 중심상가
경매물건



토지 488평
건물 6008평
감정가 25,143,000,000
최저가 17,600,000,000

【법원 경매/공매】

토 지	일 반 물 건
▶나주 봉황면 황룡리 생산관리지역 과수원 반암마을인근 토지 3251평 감정가 270,000,000 최저가 216,000,000	▶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인근 근린시설 현재 성업 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광산구 박호동 임야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토지 13200평 감정가 192,000,000 최저가 192,000,000	▶서구 치평동 소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입업종 가능 매매가 17억
▶북구 효령동 효령노인복지타운입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토지 295평 감정가 202,000,000 최저가 202,000,000	▶서구 마북동 도시지역 도시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능
▶해남 북평면 이진리 바닷가인근 교육시설 토지 3606평 건물 226평 감정가 273,000,000 최저가 273,000,000	▶서구 마북동 연화아파트 입구 126평 매매가 5억2천
	▶서구 마북동 상무한신휴플러스아파트 입구 46.2평 매매가 3억
	▶담양군 대덕면 장산리 전원주택 최적지 유휴관리인근 토지 359평 평당 40만원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전 도로점 토지 200평 매매가 1억5천만원
	▶서구 치평동 중심상가 삼성화재인근 토지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1억
	▶담양군 대덕면 장산리 전원주택 최적지 유휴관리인근 토지 359평 평당 40만원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적 1종일반주거지역 무동산지락 토지 456평 3억 조정가능
	▶태양광가능 평당 2만원 강진 신천면 수양리 임야 42000평
	▶신안군 중도면 우전리 임야 토지 6714평 매매가 3억5천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11필지 자연녹지 대나무 생태공원조성사업 2540평 5억 5천만원
	▶나주 금천면 오강리 자연녹지 과수원 1600평 4억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